

▶정수영(鄭遂榮)(1743~1831 영조19~순조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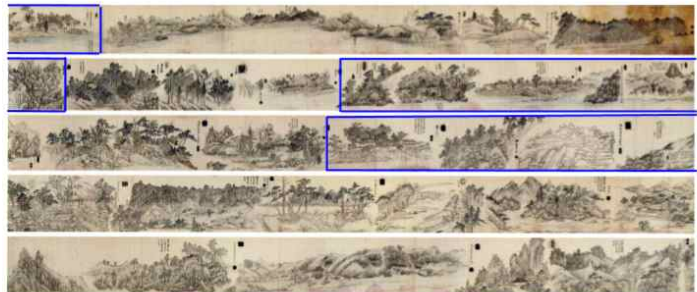
-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군방(君芳), 호는 지우재(之又齋)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 정인지(鄭麟趾)의 후손으로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정상기(鄭尙驥)의 증손자이다. 문인화가이자 선비화가로서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지리학의 명문이었던 집안의 전통을 따라 기행(紀行)과 탐승(探勝)으로 시·서·화에 몰두하며 일생을 보냈다.

▶대표작품: 「한강·임강유람사경도권」(1796~97), 「해산첩」(1799 강산 일대를 여행하면서 만든 초본을 바탕으로 그림), 「지우재묘목첩」, 「춘강고주도」(다양한 소재) 등

▶정수영은 산수를 비롯해 화조(花鳥), 어해(魚蟹)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으나 주로 산수화에 심취했던 듯하다. 산수화는 전통적인 정형산수화(定型山水畵)와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를 두루 제작하였다. 금강산과 한강 일대를 기행사경(紀行寫景)하고 그린 진경산수화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의 회화세계는 자유분방한 필치와 유탄사용, 거친 독필(禿筆)주로 강한 개성을 드러냈다. 이러한 그의 화풍은 조선 후기에 확산된 남종화풍(南宗畵風)을 익혀 자기화시킨 것이다. 아울러 정선(鄭敼)의 진경산수화풍을 비롯해 심사정(沈師正), 이인상(李麟祥), 강세황(姜世晃) 등 선배 문인화가들의 화법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스케치풍의 유탄약사(柳炭略畵)와 수묵(水墨) 사용, 거친 붓자국, 대담한 화면 구성 등은 조선 후기 화단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함을 지녔고 한국적인 독특한 분위기와 정취를 풍긴다.

▶《漢臨江名勝圖卷》?

- 정수영의 자전적인 여행을 기록한 화권이다. 정수영은 선유와 산유라는 두 가지의 여행 형태를 즐기면서 총 26개의 화면을 대략 16m나 되는 하나의 긴 두루마리 형태로 남겼다. 이 화권은 길어도 길이지만, 한강과 임진강 일대의 매우 넓은 범위 지역을 하나의 책 형태에 남겼다는 점, 마치 지도처럼 장소의 이름 기록한 점 등이 특이하다.



- 여주 일대 지역 (고산서원, 추읍산, 용문산 등)을 그린 화면은 길이로 보아도 약 16m의 화권에서 4m가 조금 안되는 4분의 1정도의 면을 차지하고 있다. 한 지역을 많은 부분에 걸쳐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정수영에게 있어 여주 지역은 매우 인상적이고 특별한 장소였던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현재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화가들의 작품 중 여주일대를 그린 그림으로 는 정선의 <청심루>와 <신록사>가 유일한데, 당시 문인들이 즐겨 찾고 그들의 시문이 많이 남아 있는 장소였던 반면, 그림으로 많이 그리지 않은 곳을 표현하였다.



도 54. 정수영, <神勒寺>, <神勒寺 東臺塔>, 《한·임강명승도권》부분, 25.3×105.0cm



도 55. 정수영, <神勒寺 東臺 東磧石>, 《한·임강명승도권》부분, 25.3×46.7cm



도 56. 정수영, <神勒寺 東臺>, 《한·임강명승도권》부분, 25.3×34.4cm

▶ <신륵사(神勒寺)>



- “古人の 시에 이르기를 ‘평생 최고로 잊기 어려운 신륵사 앞 호수’ 그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인가.” -강관
- 남한강에서 배를 탄 채로 바라본 신륵사의 모습을 상세히 표현(동대->)
- 유탄으로 약사한 뒤, 수묵 담채 ->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손때묻은 것같은 소박함이 있어 좋음
- 토산과 대비되는 바위의 강한 붓터치.,
- 특이한 형태로 생긴 길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
- 강월헌 생략 -> 의도적인 생략일 것! 바위와 그 주변, 탑, 비석의 모습을 중점으로 표현하고자, 주변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한 선택



<전탑>



<삼층석탑>



<강월헌>

- <신륵사> 작품은 참 재미있게 느껴졌다. 이 작품을 보고 있자니 전에 가보았던 신륵사의 전경이 펼쳐질 정도로 잘 그려진 실경산수화이다. 또 한편으로는 정수영이 감동받은 신륵사 풍경에 대한 감상평과 표시들을 읽다보면 정수영의 오랜 일기장을 들추어 보는 느낌도 들었다. 2년 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 곳곳의 역사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급급했다. 200년 전 정수영이 바라보던 그 아름다운 장면을 .. 긴세월이 지나 현재의 내가 바라보는 느낌과 감동은 어떨까? 지난 겨울 정선의 그림을 좇아 관동 8경답사 여행을 떠났듯 정수영의 화권 속 풍경을 찾아, 남한강을 따라 여주화첩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